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더불어 사는 성도, 함께하는 공동체
- ◎ **당회:** 6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 ◎ **선교주일:** 오늘은 바누아투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선교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참가자: 심창진, 이광희, 이정인, 남영수, 박후임, 최은수, 임태원, 김규연, 이민우, 이예찬, 김다운, 김효설, 이아람, 이태한(14명). 기간: 6월 30일-7월 7일
사역내용: 어린이 사역, 집짓기, 정탐, 호별전도, 의료사역.
- ◎ **창립주일:**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가 7월 13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 **간증집회:** 창립감사 간증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시 2014년 7월 11일(금)-12일(토) 오후 7시 장소: 본당 강사: 전기봉 목사
- ◎ **간담회:**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향한 중,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가집니다. 각 공동체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미리 의견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4년 7월 26일(토) 오후 7시-9시 장소: 유아실 참가대상: 각 공동체장과 인도자, 안수 집사, 당회원, 교역자
- ◎ **모임:**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준비 바랍니다.
- ◎ **월샅기도회:** 오는 7월 1일(화)은 월샅기도회 날입니다.

교우소식

- ◎ **소천:** 김경집사(차세정집사) 어머니가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한 어머니입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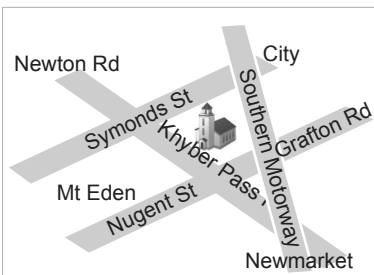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6월 29일 주일 16권 26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인 월드컵이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셈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들지 못해 아쉽지만 4년 후를 또 기약 할 기회가 있음에 너무 허탈해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16강이 가려지고 이제 오늘부터 8강에 오르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축구경기로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30세까지는 준비기간이고 30-60세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고 60-90세까지는 후반전이고 그리고 90세부터는 연장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다 100세부터는 승부차기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6월 29일, 이제 2014년의 전반전이 끝나가는 인저리 타임(추가 시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해의 절반이 흙먼지를 날리며 사라지는 시골 버스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져가는 직행버스를 쳐다보며 놓쳐버린 안타까움에 울상 짓는 아낙네처럼 때로는 아쉬움, 어떤 때는 반성과 죄송스러움으로 달려 끝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후반전이 시작되지 않았고 후반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물컵에 반잔의 물이 있음을 보면서 반 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반이나 남았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가 되고 미안한 것이라기보다 그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고 생산적이지 못했고 내것으로 만들지 못함 때문일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에 실수하여 실점을 했어도, 반칙을 하여 옐로우(경고) 카드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 하지 않고 후반전에 최선을 다하면, 있는 힘 모두 쏟아부으면 만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으로 갈 수 있고 인저리 타임에 승부를 뒤집는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24에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하셨습니다. 2014년의 후반전을 다시 시작합시다.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헌 금 기 도
파 송 식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히브리서 11:6
찬양대
다함께
35장. 큰 영화로신 주
110. 선교주일
사도신경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경덕현 집사
사도행전24:24-27
나무십자가 찬양대
구원은 기회다/이태한목사
523장. 어둔 죄악 길에서
인도자
이광희장로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윤숙 집사
느헤미야 2:1-10
기도하면/이성철목사
인도자
인도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조주찬 형제

7월 교회악기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간증집회: 7월 11-12 (금, 토요일)
창립주일: 7월 13일(주일)
간담회: 7월 26일(토요일)

7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박병민/이기중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기도헌서

이번 주 애찬: 이성철 목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7월 9일 수요: 김태만 집사
7월 9일 애찬: 전인우 집사
7월 13일 주일: 김철재 집사
7월 13일 청년부: 연합예배

금주의 기도제목

- 1. 창립주일 감사예배와 간증집회가 은혜 중에 준비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감사에게 성령충만을 주시도록.
- 2. 단기선교 팀원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 3. 영주권, 비즈니스,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 하는 성도들에게 형통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7월 새벽기도회 본문

4일: 마가복음 2:1-12 모든 장벽을 돌파하는 믿음
11일: 마가복음 4:30-41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18일: 마가복음 7:1-13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위선
25일: 마가복음 9:14-29 믿음의 기도 위에 능력이 임합니다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주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이형식, 이은주 선교사의 소식입니다).

샬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몸이 시간의 속도를 따라 잡기가 힘든 나날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복음의 날을 예리하게 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삽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교지 근황 및 기도 제목>

1) “뜨러빠양크정 생명나무센터” 부지에 복토작업을 끝내고 지금은 담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55% 정도 공정률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믿음이 신실한 현지인 기술자와 일꾼을 만나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들 ‘일꾼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중 한 사람인가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기도후원의 결과입니다.

- 기도) 센터부지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2) “생명나무의 집” 언어교실과 주일예배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글, 영어교실 총 50여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 2일부터는 아홉 살 이하와 이상,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균 70여명의 아이들이 참석합니다. 요즘은 뜨러빠양크정과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참 감사한 일이지요. 물론, 이 아이들의 많은 수는 놀이와 간식이 동기기겠으나, 예전 우리네 경험도 이와 비슷했듯, 이들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드러지는 예배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도록.